

호시노 사다하루(星野貞治)의 「제주도」 론 - 제주도 주둔 일본군이 본 '제주도' -

蘇明仙*

smskk0604@cheju.ac.kr

< 要 旨 >

第二次世界大戦末期、敗戦を目前にした日本は、アメリカとの本土決戦のために7万名を越える兵力を濟州島に送り込む。近年日本軍の軍事基地が数多く発見されるなか、日本軍駐屯基地に関する研究が總体的にな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時代を背景に滿州地域から濟州島へ移動配置された日本軍を主人公とする作品がある。星野貞治の短篇「濟州島」はフィクションではあるが、日本軍研究に先立つ1980年に刊行された作品であるだけに注目に値する。本稿は日本人は当時植民地朝鮮の最南端の濟州という島をどのように見ていたのか、つまり文学テキストにおける「濟州島」像たるものはいかに表出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濟州島」は濟州島の自然を背景に叙情的・牧歌的世界が展がっており、日本兵と濟州島少年との人間的交流が描かれている一方、滿州移殖者の日本軍という設定を通して日本帝国の植民地政策と侵略戦争を告発している。またこの際話者は植民地政策により故郷を去らねばならなかった滿州移殖者と祖国喪失者としての濟州人を、反国家的・反戦的立場において同じ地平で捉えており、それゆえこそ童話のような牧歌的世界が構築可能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主題語： 제주도,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만주, 고향상실자, 조국상실자
Cheju Island, World War II, Japanese army, Manchuria, A person of hometown loss,
A person of mother country loss

1. 서론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 자체가 중심과는 멀리 떨어진 주변/변방이라 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특히 한반도의 변방이자 아시아의 변방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근대국가 형성 이전에는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곳이, 한반도에 대한 이권쟁탈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일본제국의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36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에는 미군정에 의한 억압과 탄압을 받아야 했던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이러한 제주도라는 섬을 일본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제주도에 대한 시각이 문학텍스트 속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 있는가.

본고에서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식민지 지배국 병사로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을 통해 제주도라는 섬이 어떠한 식으로 표상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일본인 작가에 의한 제주도 표상 소설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작품으로는, 먼저 본 고에서 다루게 될 호시노 사다하루(星野貞治)의 소설집 『제주도(濟州島)』(檸檬社、1980.12)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제주도(濟州島)」 외에, 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의 「유랑곡예사(旅芸人)」(「文芸」1985.4), 오다 마코토(小田美)의 「아버지」를 밟다(「アボジ」を踏む)(「群像」1996.10), 란 치요마루(蘭千代丸)의 『마지막 인연(最後の絆)』(今日の話題社、2004.10) 세 작품이 있다.¹⁾

「제주도」의 작가 호시노 사다하루에 관해서는, 작품집의 저자약력을 통해 1909년 군마현(群馬県)출신이라는 것과 1957년부터 동인잡지 「신풍토(新風土)」를 발간한 사실, 그리고 1980년에 간행된 『제주도』 외에 『여자의 계단(女の階段)』(審美社、1966), 『혼합열차(混合列車)』(審美社、1969), 『뉘시꾼 일기(つり人日記)』(皆美社、1976)등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 외에 알려진 정보가 없다.²⁾

일제말기의 제주도를 배경으로 제주도에서의 주둔 경험이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예는, 시인·요시오카 미노루(吉岡実)의 에세이집 『요시오카 미노루 산문초—詩神이 사는 장소(吉岡実散文抄—詩神が住まう場所)』(思潮社、2006.3)에 수록된 산문 중, 「제주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는 정도이고, 소설의 경우는 호시노의 「제주도」가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보인다. 전술한 것처럼 「제주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일제말기의 제주도 주둔 일본군 유적지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탐라문화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제주도에 주둔한 경험

1) 기리야마 가사네의 「유랑곡예사」에 관해서는 즐고 「기리야마 가사네론—마이너리티문학과 한반도에 대한 시선」(「日語日文學」37집 2008.2)에서 고찰한 바 있다. 유랑서커스단 단장의 회고를 통해 일제치하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파노라마하듯 그려내고 있는 소설로, 제주도에 관해서는 실제 사실과는 다른 변형된 형태로 그려져 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 출신의 단장, 소위 4.3사건을 체험한 세대라 할 수 있는데, 제주도4.3사건 당시 무장대의 지도자 김달삼을 쌍둥이로 설정한다든가, 이를 위해 제주도를 쌍둥이가 많은 섬(바람, 돌, 쌍둥이)이라는 식으로 픽션화시키는 등의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주도상은 기리야마의 문학적 테마에 있어 혁명과 투쟁의 역사를 과거사의 한 페이지에 자리한 완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혁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하는 데서 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다 마코토의 「아버지」를 밟다」는 1997년 제24회 가와타야스나리상(川端康成賞)을 수상한 작품으로 대단히 짧은 단편이다. 작가이며 평화운동가인 오다 마코토(2007.7사망)는 개헌반대모임인 「구조의 모임(九条の会)」 발기인이기도 하다. 1920년대 기미가야마루(君が代丸)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와 고베에 정착한 장인과 장모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작품 속에는 해녀인 장모와 담배, 술, 빠칭코, 그리고 여자로 일생을 보낸 장인, 일본에 건너와 해녀를 실어 나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토목공사장 인부, 공장직원, 행상, 암시장, 고무구두 제조 사장 등 갖가지 일을 전전해온 힘겨운 삶, 그러면서 일곱 딸 중에서 북한으로 귀국한 자식을 두기도 한, 그야말로 제일제주인의 삶의 전형을 그리고 있다. 폐암으로 입원 중이던 장인이 마침 외박 허가를 받아 나온 날 밤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혼란 속에서 병세는 더 악화되어 「나는 생으로 돌아간다(ぼくは生まで帰る)」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장인의 말대로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소설의 제목인 「아버지를 밟다」는 제주도에 장인의 시신을 묻고 나서 혼이 달아나지 않도록 흙으로 덮은 뒤 그 위에 서서 꼭꼭 밟아주는 풍습을 말하고 있다. 제일제주인의 애달픈 삶을 간결하면서도 애절하게 잘 그려낸 작품이다.

란 치요마루의 『마지막 인연』은 일본인 청년 실업가가 여행자인 제주도에서 만난 여인과의, 소위 국제적인 사랑을 그린 장편소설로, 작품의 완성도로 보아 삼류 연애소설 같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앞서 소개한 두 작품과 같이 제주도의 역사적인 이미지보다는 관광지로서의 제주도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2) 일본의 인명사전 참조나, 참가했던 동인지를 역추적하는 등의 조사는 물론 두 권의 작품집을 간행한 출판사(審美社)에 직접 문의해 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작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공인된 정보는 찾아낼 수 없었다.

을 가진 증인(일본군)의 발굴 작업과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2008년 2월에 연구 성과물을 제출했다.

「제주도」의 창작 시기는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작품집 『제주도』가 발간되는 1980년보다는 앞서 집필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이는 곧 일본군 군사유적지에 관한 학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호시노의 소설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설 「제주도」는 일본인에 의한 문학텍스트 속의 ‘제주도’상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제주도 주둔 일본군 연구와도 유기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본토가 아닌 만주에서 파병된 일본병사가 주인공으로 설정되어져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독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은 만주거류 일본인을 통해 전쟁말기의 군내부의 정황, 그리고 마을의 김이라는 성을 가진 소년과의 우애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다. 이 속에서 일본국 병사가 바라본 식민국의 한 변방 제주도라는 점이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지 살펴 보겠다.

2.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제주도와 ‘제주도’

앞서도 언급했지만, 소설의 시간적인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서 패전까지이고, 주인공들은 만주에서 비상소집을 받고 징집되어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 방역급수부대로 배속된 만주거류 일본인이다. 소설은 1945년 6월, 하얼빈의 한 외곽 역에서 행선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화물열차에 몸을 실은 이등병들의 대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즉 1944년 7월에는 사이판, 8월에는 괌, 10월에는 필리핀의 레이테 섬이 차례로 함락되면서, 일본의 패전은 목전에 놓인 상황이 된다. 이에 일본군은 본토결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듬해인 1945년부터 그 작업이 본격화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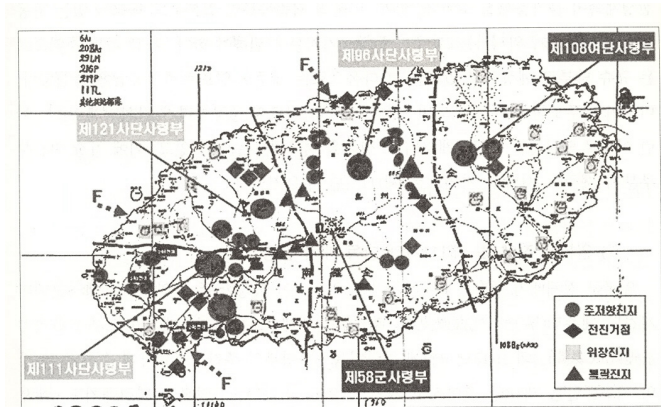
1945년2월9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미군과의 본토결전에 대비해, 17개 방면의 육해군에게 결전작전준비를 명령한다. 이 작전 암호명이 ‘결호작전’으로, 미군의 본토진출가능 루트를 7군데로 예측하고, 각 지역은 이에 대비한 작전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때 제주도가 중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제주도를 본토사수를 위한 최후의 방어지로 보고, 패전직전까지 7만 여명³⁾의 군병력을 제주도로 이동·배치시킨다. 7만 여명이라는 숫자는 1944년 말까지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수가 1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했을 때 실로 엄청난 증가임을 알 수 있다.

1945년4월에는 제주도 방위 강화를 위해 제58군사령부가 신설·편성되었고, 또 이즈음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 등지에 특공기지가 건설되는데, 여기서는 가이텐(回天)이라

3) 당시 제주에 들어온 일본군 수는 총74,781명, 그 중 순 일본인은 57,620명(48524명)인데, 패전 후 한국에서 철수한 인원을 비교해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였다.

고 하여, 공중전의 가미카제 특공대(神風特攻隊)와 같이 어뢰를 안고 적의 함대로 뛰어드는 육탄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병력증원뿐 아니라, 일본군은 해안과 산악 지대에 군사시설을 구축하였는데 현재 대략 80여 곳에 700여개의 동굴기지가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군의 전력이 제주도로 집중 투입되는 가운데, 관동군 휘하의 제111사단과 제121사단이 제주도로 이동·배치된다. 제111사단은 1945년 5월에 제주도에 주둔, 제121사단은 6월에 하얼빈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온 것으로 밝혀져 있다.⁴⁾



〈그림 1〉 제주도 일본군 배치 현황

여기서 실제 대미결전을 위한 일본군의 배치 현황을 지도⁵⁾를 통해 보면, 동부의 고원지대에 배치되는 부대는 제121사단이다.

소설 「제주도」로 돌아오면, 주인공 무례(牟禮)등이 출발한 곳은 하얼빈 외곽역이고, 그 시기가 6월이다. 제주도로 배치되는 시기로 보아 우선 제121사단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경로는 하얼빈 → 봉천 → 압록강 → 여수 → 제주도로

되어 있다. 소설 속에 보이는 제주의 지명이라고는 제주항, 한라산, 애월리, 단 세 곳뿐으로 소설을 통해서서는 이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그리고 제주도 어느 지점에 배속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배치된 방역급수부대 본부가 약 400미터 부근의 넓은 목장지대를 지나, 약 800미터 지점의 관목림 속에 있다고 하는 문장⁶⁾으로 판단하여 지도상의 제121사단이 위치하는 곳 부근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무례 등은 패전 후 소환명령을 받고 애월리에 소집한다. 이는 실제 제121사단이 애월읍 소길리와 금덕리 주변에 집결했다는 연구결과⁷⁾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종결부에서 사세보(佐世保)로 귀환하는 시기가 정확히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절상 가을임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 있다. 패전하고 미군이 제주도에 입항한 후, 일본군은 194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미LST함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세보항으로 송환되었다는 기록⁸⁾ 등을 참조했을 때 무례 등의 귀환시기와 일치

4) 이상 일제말기의 일본군에 관한 자료는 『중보 제주통사』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도 4.3사건 제1권 조선 해방에서 4.3전야까지』 등을 참조.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I』 (보고사.2008.2) p.58
 6) 部隊が本部と定めた場所は、山の二合目あたりに開けた広大な牧場地帯を過ぎ、四合目あたりにかかる灌木林の中であつた。牧場にはすでに一匹の牛の姿も見あたらなかつた。(『濟州島』p.34)
 7) 조성윤 편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2) p.112
 8) 제주 지역에서의 일본군의 무장 해제 진행 상황과 실제 귀환병 수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121사단 방역급수부대는 70명이 사세보로 귀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I』 보고사, 2008.2 p.216)

한다. 따라서 무례 등은 제121사단의 1만3천명 병력 속에 포함되어 제주도로 들어온 관동군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본토사수를 위해 ‘인간어뢰(回天)’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긴장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주인공들이 제주도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시상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3. 서정적 · 목가적 세계속의 인간애

남하하는 화물열차에 타고 있는 이등병 무례(牟禮)와 니시카와(西川)는 중국 요양(遼陽) 출신이다. 당시 양곡회사에 다녔던 무례는 일 관계상, 통운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니시카와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리고 봉천(奉天)에서 자그마한 요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다케야마(武山)와는 재향군인회에서 자주 만나곤 했던 사이이다. 아래 인용은 하얼빈에서 출발한 이들 관동군이 처음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특히 시야에 가득 들어오는 한라산에 대한 인상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항은 작고 부두 건물은 폭격을 맞아 타서 무너져 있었지만, 섬은 의외로 크고 중앙에 높은 산도 솟아있었다. (중략) 旧火山인 한라산은 아카기야마(赤城山)와 닮은 느낌이고, 긴 산자락을 바다까지 끌고 있어 섬 어디에서도 보이는 2천 미터 정도의 높은 산이었다.⁹⁾

먼저 섬의 상징인 한라산의 자태에서 작자의 고향인 군마현(群馬県)에 위치한 해발 1828미터의 화산 아카기야마를 연상한다. 또한 이들이 패전을 맞이하여 철수를 할 즈음의 한라산은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고 한라산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선명하게, 전쟁과 패전 따위에는 조금도 상관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¹⁰⁾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지는 인용은 제주도의 민가를 서술한 부분이다.

세탁사건이 있고나서 사요일 김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무례(牟禮)와 다케야마(武山)는 할머니 병문안 겸 소년의 집을 찾아가 봤다. 그들이 살고 있는 부락은 강 건너편이고, 이 부근에서는 가장 큰 촌락이라는데, 마흔 가구 정도의 집이 모여 있었다. 어느 집이나 가난해 보이는 초가지붕의 작은 집으로, 그 지붕에 큰 그물이 덮여 있고, 네 모퉁이의 굽직한 그물에는 각각 누름돌이 매달려 있어 격심한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¹¹⁾

9) 港は小さく波止場の建物は爆撃を受けて焼け落ちていたが、島は以外に大きく中央に高い山も聳えていた。(中略) 旧火山である漢拏山は赤城山に似た感じで、長い裾野を海までひきずり、島のどこからでも見える二千メートルほどの高い山であった。(「済州島」p.34)

10) 秋晴れのいい天気が続き、漢拏山が紫色にくっきりと、戦争や敗戦などということには少しも関りのない、美しい姿を浮かべている。(「済州島」p.63)

11) 洗濯事件があってから四、五日、金の姿が見えないので、牟禮と武山は婆さんを見舞いながら、少年の家を尋ねてみた。彼らの住んでいる部落は川の向うで、このあたりでは一番大きな集落だそうで、四十戸ほどの家がかたまっていた。どの家も貧しそうな茅葺きの小さな家で、その屋根に大きな綱が被せてあり、四隅の太い綱にはそれぞれ重しの石がぶらさげられてあり、烈しい台風に備えていた。(「済州島」p.47)

미군의 일본에 대한 공격은 1945년 3월의 동경 대공습에서부터 대도시를 겨냥한 대규모 소이탄 공격으로 바뀌고, 그 이후 제주도의 군기고를 공격해 오는 일도 잦아졌다. 이 때 미일 양국간에 제주도 상공에서 공중전이 펼쳐진 일이 있었는데, 1945년 7월 6일 사라봉 상공의 공중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군기 4대를 격추당한다. 12)

멀어져 간 비행기의 폭음이 갑자기 격해지고 비행장이 있는 방향에 검은 오리 같은 적기가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히노마루기가 한 대 급상승하여 공중전을 전개했다. 무레도 다케야마도 제방 위에 뛰어올라 그것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공중전은 정말 싱겁게 눈 깜짝할 새였다. 하얀 연기를 뿜어낸 히노마루기는 속도를 잃고 흔들흔들 한라산 모퉁이 쪽으로 떨어지고, 검은 오리는 저공해서 낮게 날며 무레 등의 머리 위를 탄환처럼 날아갔다. 병사들에게는 아무런 전황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적기라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평안하고 한가로운 섬 풍경이다. 보리가 황금물결을 이루고 자귀나무 꽃이 도처에 예쁜 무지개 원을 그리고, 산딸기의 붉은 열매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얼굴로 익어있다. 13)

위의 인용에서 무레 등은 처음으로 목격하는 공중전을 보고 검은 오리 같은 적기가 순식간에 일본기를 격추시키고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자연의 한 풍경처럼 바라보고 있다. 가끔 적기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전황을 전혀 알 수 없는 하급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제주도는 본토사수의 최후의 보루지가 아닌 단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마을의 한 소년과 일본인 병사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생겨난다.

이 마을에는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는 소년이 있다. 무레 등이 수급장 옆에 오두막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생활하자, 매일같이 얼굴을 내밀고, 여과기 핸들을 돌려주기도 하고, 막걸리를 부탁하면 사다주기도 하며, 심부름에 대한 대가로 잔돈이나 배급 건빵을 주면 모두 집으로 가져가 할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소년이었다. 앞서 인용한 자료에서 세탁사건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은 귀가 멀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김 소년의 할머니가 가끔 물을 길기 위해 수급장에 나타나는데, 무레는 이 할머니를 위해 집까지 물을 운반해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수급장에서 빨래를 하고 있자, 이즈미다(泉田) 상등병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군이 사용하는 물 옆에서 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태연히 빨래를 계속하자 화를 내며 단도를 뽑아 할머니를 놀래킨 사건이다. 이 때도 무레 일행은 김 소년에게 마을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물인지라 할머니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즈미다상등병의 행위를 비난한다.

12)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7) p.337

13) 遠ざかっていた飛行機の爆音がまた急に激しくなり、飛行場のある方向に黒い鴨のような敵機が姿を見せると同時に、日の丸機が一機急上昇して空中戦を展開した。牟礼も武山も土手の上に駆けあがってそれを眺めた。始めて見る空中戦はまったくあつけなく、あつという間であった。白い煙を吹きだした日の丸機は失速し、ゆらゆらと漢拏山の山裾の方へ落ちていき、黒い鴨は低空で牟礼たちの頭上を弾丸のように飛び去っていった。兵隊たちにはなんの戦況も知らされない。敵機でも姿を見せなければ、まったくのどかな島の風景である。妻が黄金の波をうち、合歓の花がいたるところにきれいな虹の輪をかけ、木苺の紅い実があつちこちで、人待ち顔に熟れている。(「済州島」 pp.42~43)

한편 김 소년에게는 오치요상(おちよさん)이라 불리는 고모가 있다. 죽은 아버지의 여동생으로 오사카(大阪)에서 살다가 1945년 봄에 제주도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요염한 자태로 이상한 오사카 사투리를 구사하며, 어느 부대의 병사와도 가볍게 말을 건네는 그런 여성이다. 그런 행동은 주위의 시선을 끌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화제의 인물이었다. 이 오치요상에게 이즈미다는 환심을 사려고 갖가지 행동을 한다.

소년은 한마디 가볍게 대답하고, 수달 같은 민첩한 몸놀림으로 소리도 없이 탁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눈 깜빡할 새 폭포 위 수 미터 근처에서 맞은 편 해안의 바위에 달라붙었다. 과연 어부의 자식이라 할만 했다. 김 소년은 단 한 명뿐인 할머니를 수급장에서 심하게 책한 상등병을 자기 집에 재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목덜미에 옷을 동여매고 팽팽한 로프를 따라 이즈미다가 다 건너자, 소년은 로프를 풀어 신호로 손을 흔들고, 맨몸으로 달빛을 받으면서 달려 사라졌다. 무례에게는 뭔가 달나라 왕자 같은 멋진 녀석이 건너편 강가를 달려가고, 이쪽에는 웬지 더러운 큰 시궁창 쥐라도 건너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¹⁴⁾

위의 인용은 오랜 가뭄 끝에 호우가 쏟아지자, 급수제한 임무도 없어진 이즈미다가 오치요상의 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급류에 휩쓸린 것을 김 소년이 구해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용의 마지막 두 행을 보면, 무례는 이즈미다를 썩싸게 구해주는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을 ‘달나라 왕자같은 멋진 녀석’이라 표현하고 있고, 김 소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즈미다의 경우 ‘웬지 더러운 큰 시궁창쥐’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년은 쓸쓸한 듯한 눈을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향해 있었다. “그랬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야 김 소년도 쓸쓸하겠지, 하지만 너는 사내잖아, 외로워도 잘 버텨야지, 그렇지 않니, 김 소년, 가까운 시일 안에 너희 집에 갈 테니까” 다케야마는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운을 북돋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삼일 후 무례와 다케야마는 사람들 눈에 띄는 낮을 피해 밤에 김 소년을 찾아갔다. 그의 집은 바다 근처 부락 외진 곳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에 한그루의 나무가 우거져 때마침 바다 위에서 올라온 달빛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가가니 집안에서 뭔가 기원하는 듯한 낮은 노랫소리가 흐르고, 그것과 함께 둔탁한 맷돌 돌리는 소리가 났다. 무례도 다케야마도 그 노랫소리에 무심코 발을 멈췄다. 노랫말은 조선어라 전혀 몰랐지만, 슬픈 곡조를 띤 선율은 서로의 가슴에 문득 먼 옛날의 자장가를 생각나게 했다. 두 사람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보니 집 안은 어둡고 툇마루에 맷돌을 놓고 소년과 그 늙

14) 少年は一言無造作に答え、獺のような敏捷な身ごなして、音もなく濁流の中にすべりこみ、あったという間に滝の上数メートルのあたりで、対岸の岩に取りついた。さすがに漁師の子だといっただけあった。金はたった一人の祖母を水汲場であてつけた、上等兵を自分の家に泊める気にはなれなかったが、といてそのままいげに断わることも出来なかったであろう。首っ玉に服をくりつけて、張ったロープを伝って泉田が渡り終わると、少年はロープを解いて合図の手を振り、裸で月の光を浴びながら走り去った。牟礼にはなんだか月の王子のような素晴らしい奴が向う岸を走っていき、こっち側には薄汚い大きな溝鼠でも渡ってきたような、そんな感じであった。（「済州島」 pp.58~59）

은 숙부가 마주하고 땃돌을 돌리면서 노인이 노래하고 그것에 소년이 맞추어 부르고 있었다. 달빛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동화의 세계처럼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¹⁵⁾

세탁사건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이든 숙부와 함께 살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무례와 다케야마가 소년의 집을 찾아간다. 거기서 숙부와 김 소년이 땃돌을 돌리며 부르는 제주민요의 애절한 선율에 발길을 멈추는 장면이다. 달빛을 받으며 땃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에서 마치 ‘동화의 세계’를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 외에도 무례와 다케야마는 비행장을 급습한 적기의 기총소사에 맞아 죽은 소를 사들여 김 소년과 오치요상을 불러서 바비큐 파티를 벌이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장면이 있기도 하다.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세계 속에서 마을의 소년과 일본병사와의 우애가 마치 동화의 세계처럼 펼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례 등은 김 소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 무례 등이 소속한 군내부의 식량 및 군수품 사정은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무례 등은 이를 김 소년에게 항상 넉넉하게 나눠주었고, 마을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한다.¹⁶⁾

그러다 이들에게도 마침내 패전 소식이 전해지고, 제주도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은 철수작업에 들어간다. 그동안 본토사수작전에 대비해 비축해두었던 무기와 식량을 미군에게 양도하기 위해 비행장 광장으로 수송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굶주린 마을사람들이 그 식량에 손을 대는 모습이 보인다. 다케야마는 마을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좀처럼 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 일부러 그녀 앞에 쌀가마니를 터트려주는 장면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1945년 당시의 제주도의 모습을 서술하는 화자의 태도에는 그 어떤 편견도 보이지 않으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도 면밀히 잘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군과의 본토 결전을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애가 물씬 풍기고 있다. 이처럼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휴머니스틱한

15) 少年は淋しそうな目を、遠く沖の方へ向けていた。「そうか、婆ちゃんがなくなったんか、そりゃ金坊も淋しいだろうな、でもおまえは男の子だろう、淋しくたって頑張らなきゃあ、なあ金坊、そのうちおめえの家にも遊びにいくから」武山は少年の肩を叩きながら、元気をつけていた。それから二、三日後、牟礼と武山は人目につく昼間をさけて、夜、金少年を訪ねた。彼の家は海に近い部落のはずれで、崩れかけた石垣に囲まれており、入り口に一本の木が繁りちょうど海から上がってきた月の光をさざぎっていた。近づく家の中からもやたら祈るような低い歌声が流れ、それとともに鈍い石臼の響きかしていた。牟礼も武山もその歌声に思わず足をとめた。歌っている言葉は朝鮮語でなにも分からなかったが、哀調をおびたその旋律は、互いの胸にふと遠い昔の子守歌を思いださせた。二人はしばらく耳を傾けてから中に入った。見れば家の中は暗く、縁側に石臼を据え少年とその老いた伯父が向きあって、石臼を廻しながら老人が歌いそれが少年が和していた。月の光りがその二人の姿を童話の世界のように浮きだしていた。(「済州島」pp.66~67)

16) 다카무라 료헤이(高村龍平)의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인의 제주도 주둔 경험」(『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2)이라는 논문을 보면 패전 후 ‘식량은 풍부했고 쌀이나 술도 많이 있었다. 해방 후 쌀이나 옷 등과 주변 주민이 가져오는 생선을 교환하기도 했다’(p.308)란 기술이 보이고,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으나, 일본군이 마을 잔치에 얼굴을 내밀어 동참하거나, 역으로 생선, 고구마 등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과 부대의 식량과의 교환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부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을 내려가는 것을 금지해도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계속했다는 내용이 제주 주둔 경험자들의 구술을 통해서 밝혀져 있다(pp.320~323)

서정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작가 호시노가 초기작부터 ‘강렬한 서민성’¹⁷⁾을 특성으로 하는 작가이기 때문이라고도,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미군과의 혈전이 전개되지 않은 때문만이라고도 할 수 없다. 화자의 의식의 저변에는 침략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전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제국일본에 대한 식민자(만주 이주자)의 시선

이상 제주도를 본토방어를 위한 요새 구축을 위해 들어온 일본군 병사와 마을 소년이 전쟁과는 거리가 먼, 휴머니즘적인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는 모습을 살펴봐왔는데, 여기서 무레와 다케야마 등이 일본군이기는 하지만, 만주거류 일본인이란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일본정부의 식민정책으로 만주로 이주한 식민자이다.

1885년 하와이로의 ‘관약이민’이 개시된 이후 일본정부는 국내의 경제 불황과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하와이나 북미대륙으로의 이민을 권장하여 이민 수는 꾸준히 증가해 간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의 경제 불황과 일본인 이민 배척운동이 일자 그 영향으로 이민 수는 주춤해진다.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빈발하는 각종 노동쟁의, 과도한 전쟁비용과 희생을 치루면서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배상금은 받지 못하고 끝나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폭동화한 사건(日比谷焼打事件) 등 사회적 소요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던 일본정부는 만주 및 조선으로의 식민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⁸⁾ 이 시기의 만주 및 조선 안내 책자가 다수 발간·유통되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¹⁹⁾

조선으로의 식민사업은 강화도사건(1875)으로 한일수호조약을 이듬해 체결한 후,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구를 강제적으로 개방하고 왜관을 설치하는 등, 거류 일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한다. 국책사업으로써 본격적으로 조선으로의 식민을 권장하는 것은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인 러일전쟁 후부터라 볼 수 있다.

만주의 경우를 보면,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듬해부터 국책사업의 하나로 만몽개척이민(滿蒙開拓移民)이 시작된다. 이는 만주농업이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화공황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지만, 특히 농업종사자들의 이주에 있어

17)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무라카미 노부히코(村上信彦)는 『제주도』의 단행본의 서문 문장에서 호시노의 작품세계를 ‘강렬한 서민성’으로 보고, ‘소위 서민을 표층적인 간판으로 한 듯한 서민문화과는 달리, 훨씬 생동적인, 체질적인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제주도』檸檬社, 1980.12 p.2)

18)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近代日本と他者をめぐる知の植民地化』(新曜社, 2004.4) pp.66~97 참조.

19) 이에 관련해서는 졸고 「紀行文からみた明治日本の「濟州島」像」(『叙説』Ⅲ-2号 2008.2)에서 고찰한 바 있다. 한국관련 문헌만 예를 들어도 岡庸一 『最新韓国事情 一名 韓国經濟指針』(青木嵩山堂, 1903.10), 山本庫太郎 『最新朝鮮移住案内』(民友社, 1904.6), 佐藤政治郎 『韓国成業策 一名 渡韓のしるべ』(岡島書店, 1904.6), 加藤政之郎 『韓国經營』(実業之日本社, 1905.8), 徳永勲美 『韓国総覽』(博文館, 1907.8), 青柳南冥 『韓国植民策 一名 韓国植民案内』(輝文館, 1908.3) 등 조선으로의 이주 및 조선경영에 관한 매뉴얼 책자가 다수 출판되고 있다.

서는 강제적 성격이 강하고, 당시 총 27만에서 32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만주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전 후 인양 명령으로 11만 명이 귀환하지만, 많은 잔류 고아, 잔류 부인을 낳기도 했다. 그리고 전황이 악화되자 국내의 병력동원 등으로 만주로의 입식이 곤란해지자, 1942년부터는 ‘만몽개척단청소년의용군’이라는 명칭으로 15살에서 18살의 소년들을 입식시켰다. 만주로의 입식의 배경에는 국방강화, 국토개발, 농촌의 불황극복, 인구문제 해결, 취업문제 해결이라는 현안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내문제의 타결책으로 만주로 입식된 만주거류일본인이 이국에서 생활의 터전을 닦고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곧 그들은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으로 이국땅에서 군병력에 동원되어 제주도도 파병이 된 것이다. 소설 속에서 무레와 다케야마 등은 재향군인, 즉 퇴역군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미 소련·몽골군과의 국경분쟁인 노몬한 전투²⁰⁾에서 대패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다. 아래 인용은 그들의 눈을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의 무참함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소화40년 여름, 만몽 국경에서 일어난 노몬한사건에서는, 소련의 전차에 포위되어 거의 전멸적인 타격을 입고, 부상병을 가득 실은 병원열차가 요양(遼陽)에도 몇 개의 열차인지, 인목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착했다. 그 때 재향군인이 비상소집을 받고, 들것으로 육군병원으로 옮겼다. 이때의 좋은 무레의 들것 단짝이 니시카와였다. 그 부상병들은 모두 똑같이 손과 발이 없는 눈사람 같은 대원들뿐이었다. 운반해낸 들것의 모포가 들춰져, 가랑이 사이의 검게 쭈그러든 남자의 그것이 애처롭다. 그러나 그 병사들은 그런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표정으로, 움푹 팬 멍한 눈으로, 가만히 한밤의 별이 충충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전투의 무참함에 무레도 오금이 저리는 느낌이였다.²¹⁾

작품 속에서 일본군 및 침략전쟁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케야마는 일본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고 귀환 명령을 받고부터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린다. 말이 없어지고, 항상 뭔가 언짢은 듯 한 표정이었으며, 멍하니 집회소 천정만 바라보고 있거나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내 땅도 있고 가게도 있고, 가족들도 살고 있는 만주로 돌아갈 수 없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가만있을 수 있겠어? 조선의 38선을 지날 수 없다면 바다를 건너가면 되겠지, 어느 누가 이 대로 내지 따위로 데려가지는 것을 참을 수 있을까?’²²⁾ 결국 그

20) 1939년 만주괴뢰국을 설립한 이후 중국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1939년 5월에는 소련과 몽골군과의 국교분쟁이 발생하여 교전을 벌였는데 결과는 관동군의 대패로 끝난다. 무레 등은 노몬한사건 때에도 퇴역군인으로 비상소집되어 부상병 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21) 昭和四十年の夏、滿蒙國境で起きたノモンハン事件では、ソ連の戦車に包圍されてほとんど殲滅的な打撃を受け、負傷兵を満載した病院列車が遼陽にも何個列車か、人目をさけて夜中に到着した。そのおりに郷軍人が非常呼集をうけ、担架で陸軍病院へ運びこんだ。このよきの牟礼の担架の相棒が西川であった。その負傷兵たちは皆同じように、手や足のないだるまのような兵隊ばかりであった。運びだした担架の毛布がめくれ、股間の黒く萎びた男のものが哀れである。しかし、その兵たちはそんなことには全く無関心な表情で、落ち窪んだ洞な目で、じっと夜更けの星空を見上げていた。その戦いの無惨さに牟礼も足の竦む思いであった。(「済州島」p.61)

22) 「自分の土地もあり店もあり、家族たちも住んでいる満州へ帰れないなんて、そんなばかなことがあってたまるかい、朝鮮の三十八線が通れないっていうのなら、海をまわっていけばいいだろう、誰かこのまま内地へなど連れていかれてたまるかい」(「済州島」p.64)

의 선택은 귀환명령을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다케야마는 패전이 확실해지고 파견 인양 명령을 받고부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린 듯이 말이 없어지고 항상 언짢은 듯이, 오랜만에 재회한 전우들과도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가만히 집회소 천장을 바라보거나 했다. 그 다케야마의 기분을 무례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무례도 가족을 그대로 만주로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생각은 그와 똑같았다. “어이 무례 우리들은 이제 아무리해도 만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건지 어떤지, 그러한 것에 관한 상황을 나는 가능한 한 찾아보려고 생각해.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적당히 얘기해줘 줘” 지금까지 침울해 있던 다케야마가 뭔가 결심한 듯 번쩍번쩍하는 눈으로 무례에게 살짝 속삭였다.²³⁾

다케야마는 그의 결심대로 탈영하여 사세보로 귀환하는 미 군함에는 승선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설은 그가 무사히 만주로 돌아갔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끝이 난다. 식민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기민(棄民)에 가까운 이들이 만주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뿌리내리기 시작하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다시 징집되고, 일본국의 패전으로 인해 가족이 남아있는 만주로의 귀환은 불가능해지고 만 것이다. 국가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을 이중으로 빼앗긴 자들의 애환이 「제주도」에 잘 나타나 있다.

패전 후 귀환 직전에 만주에서 파병된 이등병들은 일제히 일등병으로 승진하는데 이를 소위 ‘포츠담일등병’이라 부른다. 다케야마는 받은 별을 ‘흥, 이따위 별이 웃겨서 지금에 와서 새삼 달수 있을까’라며 그대로 고구마밭 속으로 내던져 버린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는 작가의 반국가적, 반전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2차대전 말기의 일본군의 군기는 이미 붕괴되어 있었다. 혈전을 앞둔 상황에 복무 중 술을 마시거나, 혹은 임무를 내팽개치고 여자를 사러가기도 하고, 부대 내에서 돈을 강탈하려고 충기를 사용하는 등의 군 규율 무시와 반도덕적 행위를 일삼는 일탈자가 생겨난다. 특히 보병부대 중대장과 치중대의 이즈미다상등병 등의 모습은 전쟁이라는 광기의 시대를 군부대 내부에서 재현해 보이는 듯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인용은 무례 등이 제주도에 도착하여 부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본토에서 온 병사들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다.

다케야마와 니시카와들은 선발대로서, 곧장 산으로 올라가고 무례의 소대가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짐과 함께 본대에 합류했다. 본부는 관목림을 베서 길을 낸 속에 텐트가 서 있고, 이제

23) 武山は敗戦ときまわって派遣引揚げ命令を受けたところから、急に人が変わってしまったように無口になり、いつも不機嫌なように久しぶりで再会した戦友たちともろくに口をきかず、一人で黙ってじっと集会所の天井を眺めていたりした。その武山の気持が牟礼にもよく分かった。もちろん牟礼も家族をそのまま満州に残してきたので、思いは彼とまったく同じであった。「おい牟礼、おれたちはもうどうしても満州には帰れないものかどうか、その辺の様子をおれはできるだけ探ってみようと思うんだ。おれの留守³⁷に間になにかあったら適当にやっといってくれよ」今まで沈みこんでいた武山が、なにか思いつめたようにぎらぎらした眼で、牟礼にそっと囁いた。(「済州島」pp.59~60)

까지 본 적도 없는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 병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인조면의 허늘허늘한 것이고, 총은 물론이고 허리에 총검도 없고, 수통은 대나무통이며 반합 대신에 작은 버들고리짝 도시락통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아주 심한 장비를 하고 있구만” 무례는 같은 소집병같아 보이는 중년의, 별 하나인 병사에게 말을 걸었다. “음, 우리들은 규슈에서 왔는데, 이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병사들은 매일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캐고 있어. 하지만, 만주에는 아직 무엇이든 있다는 이야기지 않은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무례의 몸차림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는 내지의 궁핍은 상상 이상의 것일 것이라고, 무례는 문득 오싹하는 느낌이 들었다.²⁴⁾

7만 여명의 군사를 제주도해에 배속시키고, 지하기지를 건설하며, ‘인간어뢰’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일본군이긴 하지만, 무례 등은 중년의 퇴역군인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도 아니었고, 정예부대라 해도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점으로 미루어,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일본군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소설의 모두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무례가 입대한 부대는, 오로지 세균전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 위생부대였다. 같은 소집을 받은 자 중에서 작년 금주(金州)의 육군병원에서 함께 교육받아서 얼굴을 아는 자가 몇 명 있고, 다케야마와 니시카와도 그 동지다. 무례들은 방역급수부대에 편입되었다. 이 부대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무례가 받은 위생병교육 중에는 그런 과목은 없었다. 원대에서 병사를 교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 실전에 대해 교육한다고 하는 중대장으로부터의 통달이 있었다. 옷도 구두도 각반도 물통도 모두 새로운 것을 몸에 지니고 방역급수 도구인 원통형 여과기를 싣고 화물열차에 올라탔다. 소집되고 나서 5일째 밤의 황량한 출발이었다. 행선지는 어디인지, 병사들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몰랐다.²⁵⁾

무례가 입대한 부대는 ‘오로지 세균전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위생부대’라 되어 있다. 방역급수란 말 그대로 방역과 급수를 임무로 하는 야전부대를 뜻하지만, 대일본제국

24) 武山や西川たちは先発隊として、真っ先に山に登っていき牟礼の小隊(かんがり)で、最後の荷物とともに本体に合流した。本部は灌木林を切り開いた中にテントが並び、これまで見たこともない兵隊たちの姿が目についた。この兵隊たちの着ている服はスフのへなえへなで、銃はもちろん腰にごぼう剣もなく、水筒は竹筒で飯盒の代りに小さな柳行李の弁当入を腰にさげている。「あんたたちはどこからきたんだい、ずいぶんひでえ装具のようじゃあねえか」牟礼は同じ召集兵らしい中年の、星一つの兵隊に声をかけた。「うむ、おれたちは九州からきたんだけれど、もう食うもんも着るもんにもねえ。兵隊たちは毎日山にいて、松の根を掘っているよ、しかし、満州にはまだなんでもあろうという話じゃあねえかい」彼はそうやって牟礼の身なりを羨ましそうに眺めていた。この様子では内地の窮乏は想像以上であろうと、牟礼はふと寒気の走るような思いがした。(「済州島」pp.34~35)

25) 牟礼が入隊した部隊は、もっぱら細菌戦術を研究しているという、そんな噂のある衛生部隊であった。同じ召集を受けた中に、去年金州の陸軍病院でいっしょに教育された、顔見知りの者が数名おり、武山や西川もその仲間であった。牟礼たちは防疫給水部隊に編入された。この部隊はどんなことをやるのか、牟礼が受けた衛生兵教育の中にはそんな科目はなかった。原隊で兵を教育する時間の余裕がないので、現地に到着してから実地について教育するという、中隊長からの通達があった。服も靴も脚絆も水筒も、すべていっそうの新しいものを身につけ、防疫給水の道具である円筒形の濾過器を積込み、その貨車に乗りこんだ。召集されてから五日目の夜の慌しい出発であった。行く先はどこか、兵達にはそんなことは何も分からなかった。(「済州島」p.32)

육군의 관동군 방역급수부본부가 바로 그 악명 높은 731부대다. 방역급수부는 일본국관동군에만 한하지 않고 각국의 군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지의 방역, 즉 외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예방 및 대책, 안전한 물 공급을 중요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관동군은 하얼빈, 북경, 남경, 광주, 싱가포르 등 일본의 점령지 곳곳에 방역급수체제를 완비하여, 여수기(여과기)제조뿐만 아니라 인체실험, 세균대량생산 등을 자행해 온 사실도 알려져 있다. 무례 등이 방역급수부대에 편성되어 제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러한 임무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이 계획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극한상황에 몰린 일본군이 세균전술을 펼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패전이 지연되어 미군이 일본본토 상륙작전을 강행했다고 한다면, 방어기지로써의 제주도는 전란의 대참사를 맞이해야만 했을 것이다.

5. 결론

소설 속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제주도에 주둔한 경험을 가진 시인 요시오카 미노루(吉岡実)에게 『吉岡実散文抄—詩神が住まう場所』(思潮社, 2006.3)라는 산문집이 있다. 그 안에는 「제주도」라는 제목의 단문이 실려 있다. 대단히 짧은 문장이므로 여기에 전문을 인용해 보겠다.

조선의 한 고도 제주도에서 종전을 맞이했다. 거짓 없이, 나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다. 많은 병사들도 그것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타래붓꽃 피는 봄이었던 만주를 나와 4개월째였다. 제주도는 일본제국 최후의 교두보였던 것 같다. 아마 한달 더 전쟁이 계속되었다면, 제주도의 산속이 내가 서 있었던 마지막 땅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반대로, 죽음으로부터 나를 비호하고, 그리운 재생의 토지가 되었다. 제주도에 상륙하고 나서, 매일 만마로 탄약과 식료품을 산 속 깊은 곳으로 운반했다. 그리고 야영을 한 곳이 신성악이었다. 그 사이 말은 쓰러졌다. 먹을 것이 부족한 때라서 쓰러진 말은 죽여서 먹었다. 제대로 된 사료도 주어지지 않은 말들의 고기는, 지방이 없어 맛이 없었다. 시간이 나면 들의 딸기를 따면서 산 중턱에서 쉬는 것이다. 우리들의 섬을 둘러싼 저녁놀이 진 바다가 보이고, 그 빛나는 파도 속에 파란 비양도가 떠 있었다. 돌아보면, 봉우리가 겹쳐져 그 속의 깊은 곳에 명봉인 한라산이 솟아 있었다. 여기저기에 돌을 쌓은 담이 늘어서 있었다. 그 담 뒤 곳곳에 말의 무덤이 간단한 돌로 말 모양을 본뜨고 있고, 야초가 놓여져 있었다. 우리들 인간 사이에는 이향에서 외롭게 죽은 사람…… 이라 하는 애도의 말이 있다. 그러나 이향에서 죽은 말에는 그것이 없다. 돌 밑에서, 지금은 완전한 백골이 되어 있을 것이다.²⁶⁾

26) 吉岡実『吉岡実散文抄—詩神が住まう場所』(思潮社, 2006.3) pp.9~10

朝鮮の一孤島濟州島で終戦をむかえた。いつわりのないところ、私はほっとした気持だった。多くの兵隊もそれにつかい心情であつたらう。ねじあ

요시오카는 1941년 소집 당시 『액체(液体)』란 시집을 출간하기도 한 시인이다. 만주의 전지를 돌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제주도로 이동·배치된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요시오카가 야영한 곳이 신성악(新星岳)²⁷⁾이라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관동군 제121사단 소속임을 알 수 있다. 비단 요시오카만의 감회는 아니겠지만, 그는 제주도를 ‘죽음으로부터 나를 비호한, 그리운 재생의 토지’라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요시오카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에 주목해 보자. ‘일본제국 최후의 교두보’, ‘우리들의 섬을 둘러싼 저녁놀’ 등의 표현에는 제주도를 일본국 영토의 일부, 즉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그들의 식민지 이상으로서는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런 그였기에 쓰러진 말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여기저기 들판에 죽어있는 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살아있는 말을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목적으로 죽이는 행위 즉, 그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말의 죽음을 인간의 그것마냥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말의 죽음이 자연의 일부로 여겨졌을 때에 한한다. 동일한 역사의 시간을 공유하면서도 무래, 다케야마 등과 요시오카의 제주도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도 상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소설 속의 무래 등이 만주식민자 즉,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론에 의해 만주로 이주된 자들이며, 제국주의적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거둬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소설 「제주도」는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김 소년과의 우애, 그리고 마을사람들과의 교류를 그린 부분에서는 고향상실자(만주식민자)의 조국상실자(제주도민)를 향한 시선이 휴머니즘적인 인간애가 넘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군의 시선이긴 했지만, 전쟁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고즈넉한 섬, 격리된 공간 안에서 서정적이고 목가적이며 마치 동화와도 같은 세계가 그려져 있었다.

「제주도」는 또 한편으로는 만주로의 이민자들의 진중 및 전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패전 소식을 접하고 일본본토로의 귀환 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거부하고, 탈주하여 만주로 건너갈 결심을 하는 다케야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국일본의 식민지정책이 초래한

やめ咲く春の満州を出てから四ヶ月目であった。濟州島は日本帝国の最後の橋頭堡であつたらしい。おそらくあと一ヶ月戦いがつづいたら、濟州島の山の中が、私の立っていた最後の土地になつたであらう。それが反対に、死から私を庇護し、なつかしい再生の土地となつた。濟州島へ上陸以來、毎日輓馬で彈薬や食料を山の奥へ奥へと搬んでいた。そして野營をした処が新星岳だつた。そのうち馬は倒れた。食料のとほしい時なので、倒れた馬は殺して喰べた。ろくな飼料を与えられていない馬たちの肉は、脂がなく味気なかつた。暇ができると、野莓をつみながら山の中腹で憩うのだ。われわれの島をかこむ夕映の海が見え、その輝く波の中に青々とした飛揚島が泛んでいた。ふりむけば、峯々が重なり、その奥深くに、名峯漢拏山がそびえていた。あっちこっちに石をつんだ垣がつかつた。そのかげのところに、馬の墓が簡単な石で象どられて、野草が供えられていた。われわれ人間のあいだには、異郷でさびしく死んだ人……などという哀悼の言葉がある。しかし異郷で死んだ馬にはそれがない。石の下で、いまでは完全な白骨となつてゐることだろう。

27) 신성악(新星岳)은 셋별오름의 별칭.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하는 셋별오름은 이 외에도 새별오름, 신성악(晨星岳), 효성악(曉星岳), 조비악(丕飛岳)등의 별칭이 있다.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I』(pp.31~33)에 의하면, 셋별오름은 제121사단의 작전지역으로 밝혀져 있다. 각 작전지역에는 주저항지, 전전거점, 위장진지, 복파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셋별오름은 서북부지역의 주저항진지 중의 한 곳이다.

모순이 상징적으로 표출되어 있었다. 소설 「제주도」가 동화의 세계와도 같은 서정성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이 소설이 반국가적·반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주 식민자의 시선으로 서술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란 작품은 고향상실자(만주로의 식민자)들에 의해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침략전쟁을 고발하는 작품으로서 위치지울 수 있는 것이다.

◀ 参考文献 ▶

< 텍스트 >

星野貞治(1980) 『濟州島』 檸檬社. pp.29~79

< 국내서 >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pp.292~298

이영권(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p.337

조성윤 편(2008)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105-116, p.308, p.3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2008)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I』 보고서. p.58, p.216

< 국외서 >

『済民日報』 四・三取材班／文京洙・金重明共訳(1994) 『濟州島四・三事件 第1卷 朝鮮解放から四・三前夜まで』 新幹社. pp.21~26

大洞東平(1995) 『銃を持たされた農民たち 千振開拓団、満州そして那須の62年』 築地書館, pp.8~23

塚崎昌之(2003)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濟州島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青丘學術論集』 22集 pp.265~299

中根隆行(2004) 『<朝鮮>表象の文化誌—近代日本と他者をめぐる知の植民地化』 新曜社, pp.66~97

吉岡実(2006) 『吉岡実散文抄—詩神が住まう場所』 思潮社, pp.9~10

◆ 논문 접수일 : 2008. 06. 30

◆ 논문 수정일 : 2008. 07. 30

◆ 논문 게재확정일 : 2008. 08. 12